

# 버선의 연구 [I]

## 손 경 자

<차례>

- |                      |                    |
|----------------------|--------------------|
| 1. 버선 연구의 현황과 당위성    | 2) 혼수 버선           |
| 2. 한국 복식에 있어서 버선의 위치 | 3) 평상 버선           |
| 1) 버선의 종류            | 4) 시장 현황           |
| 2) 버선의 변화            | 5) 버선의 치수와 고무신의 치수 |
| 3. 현황의 파악            | 4. 문제점과 해결 방안      |
| 1) 버선의 이용도           | 5. 결 론             |

### 1. 버선연구의 현황과 당위성

우리가 살아 가는 데는 衣食住가 다 必要했지만 그 중에서도 衣服은 더 重要的 위치를 차지 하였다. 밥이 없어서 朝夕을 뛰며 집이 없어서 路傍에 드셀지라도 옷이 없이는 暫時도 지낼 수가 없었다. 이것은 사람이 禽獸와 달라 禮를 重히 여기는 까닭이다.

우리는 좋은감에 고운 물을 들여 맵시 있게 옷을 지어 철 찾아 입지마는, 未開의 野蠻人들은 木皮草葉으로 아무렇게나 몸을 가린다. 그러므로 衣服은 그 民族의 文化를 表徵하며, 그 個人의 品格을 表示한다. 이를 생각하면 옷을 질 때에 바늘한 땀인들 소홀히 못할 것이라고 하여 [朝鮮裁縫全書]에서는 바느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1)</sup>

이것만 보아도 우리 여성들의 과거의 생활 속에서 바느질을 중히 여기고 옷을 맵시 있게 지워 입는다는 귀감은 모든 일의 으뜸이 되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

리나라 고유문화의 한계가 흐려지고 생활양식도 절충식이 되어감에 따라 활동적이고 편리한 양장의 급격한 유행으로 우리 의상도 의식복으로 자리를 굳혀가게 되었다. 우리옷이 활동적이 아니라는 점도 있으나, 한복을 제대로 갖춰입기 위하여서는 속옷이나 동정 버선까지도 정성드려 잔손이 가야 아름다운 한복미가 나타난다. 요즘은 이와 같은 조건이 따르는 아름다운 한복의 조화미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급격히 발달한 합성섬유에 밀려 항상 삶아서 청결하게 신어야 하는 폭삭한 버선도 이제는 사라지고 나이론에 케시미어 솜을 둔 것을 신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흰색만 신었던 것을 다양한 색으로 누비 버선 등을 만들어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가는 것을 볼 때, 옛 여성들의 알뜰한 마음과 정성어린 생활신조는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을 찾고 90% 이상 기성품을 활용하는 소비자를 위하여 현재의 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註 1) Cf., 朝鮮裁縫全書의 序頭인 李王妃殿下 御筆 '廣히 女功을 勸獎호노라'

## 2. 한국 복식에 있어서 버선의 위치

한복이 지닌 너그럽고 유연한 치마자락의 선을 아래서 새하얀 앙장스러운 버선의 톡날은 더없이 아름다운 매력을 느끼게 한다.

겹겹이 속옷을 차려입고 그다지도 풍성한 실루엣에 비하면 은방을 헤매며 신은 모양이 오이씨 같다고 한 것은 여성의 아름다운 자태의 극치를 이룬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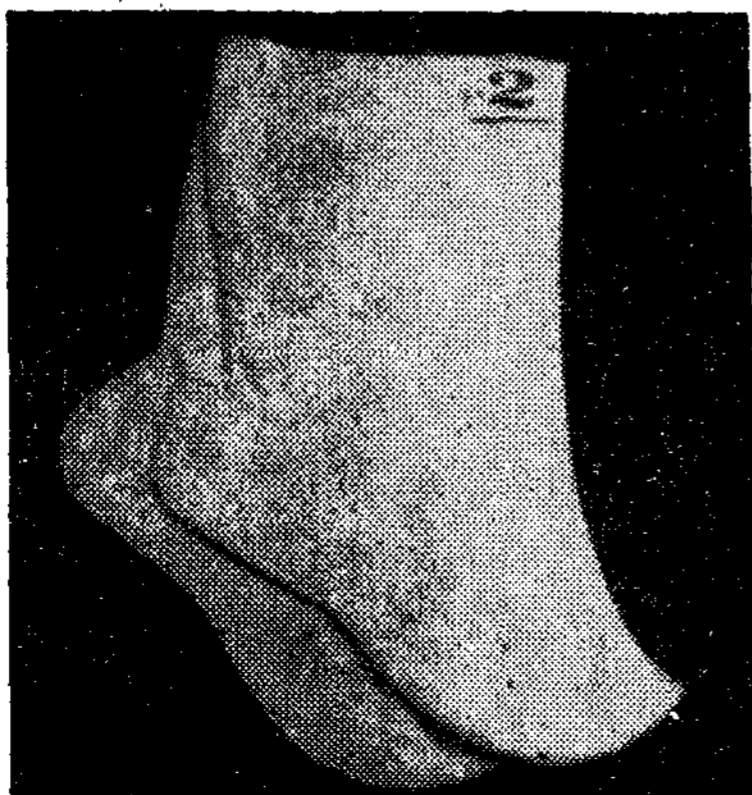
아무리 아름다운 옷차림을 하였다 하더라도 온몸을 담은 족전(足巾)이 아니라면 의복의 사명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예(禮)로는 집안에서도 의복의 예를 갖추어 맨발을 드러내지 않는 생활 신조가 흐르고 있다.

### 1) 버선의 종류

종류로는 궁중 예복인 적의(翟衣)에 신는 남색으로 만든 버선(襪)이 있고, 일반적으로 어린이용 타래버선, 솜버선, 겹버선, 홀버선, 누비버선이 있다. 만드는 데는 수축으로 뒤집는 방법과 목으로 뒤집는 방법이 있으며, 주로 흰색을 사용하였으나 근래에는 색깔 있는 나이론 감으로 누비 버선도 이용한다.

#### ① 솜버선

겹버선의 중심선인 수축 양편에 솜을 고루두어 만든 것으로 계절과 관계 없이 사용한다. 이것은 방한용뿐 아니라 버선의 맵시가 나도록 하는 동시에 겹버선보다 쉽게 헤지지 않는 장점도 있다.



1950년 혼수버선

#### ② 겹버선

겹으로 만든 버선으로 솜버선에 비하여 맵시가 나지 않는다.

#### ③ 홀버선

홀로 만들어서 속버선의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에 끼워신는 것이다.

#### ④ 누비버선

나이론에 케시미어 솜이나 스폰지를 넣어 누빈 것으로 더러움이 타지 않게 다양한 색을 이용하고 있다.

#### ⑤ 타래버선

두서너살까지 신는 버선으로 누벼서 수를 놓은 공들인 버선이다.

누비는 재봉틀로도 하고 부드럽게 손누비도 한다. 뒤꿈치에 끈을달아 앞으로 매도록 하는데 남자는 남색, 여자는 다홍색 끈을 달아서 남녀가 구별 되었다.

### 2) 버선의 변화

#### \*사진설명



1910년 혼수버선



1955년 혼수버선



1955년 기운버선



1964년 맞춤버선



1964년 맞춤버선



1970년 홀버선



1965년 나이론버선



1975년 메트론버선



1978년 나이론 버전(일명 실크버전)

## ① 1910년 혼수버전(경상도)

감 : 거죽은 광목 바랜 것.

안은 9새베

특징 : 목 1cm정도 거죽이 안으로 넘어가고, 베는 너무 곱아서 옥양목으로 착각할 정도이며, 목화솜을 두어 수축으로 뒤집고, 진솔 버전인데 불을 댔다.

## ② 1950년 혼수 버전(충청도)

감 : 거죽과 안이 모두 광목 바랜 것.

특징 : 솜을 두지 않고 겹으로 만들고 목으로 뒤집었다.

## ③ 1955년 혼수 버전(충청도)

감 : 거죽과 안이 모두 광목 바랜 것.

특징 : 솜을 발목 정도까지 놓고 수축으로 뒤집으며, 모양이 매우 예쁘다.

## ④ 1955년 혼수 버전

③번의 혼수 버전을 신어서 헤진 곳만 곱게 집고 불을 댔 것인데 기운 곳은 울따라 직각으로 곱게 감친다.

## ⑤ 1964년 맞춤 버전

감 : 거죽과 안 모두 미제 시트감으로 만들고 목화솜을 두어 수축으로 뒤집었다.

특징 : 미제시트를 물에 담구었다가 만들었으므로 세탁 후에도 줄지 않고, 빛갈도 매우 희고 깨끗하며, 옥양목보다 질기다.

## ⑥ 1964년 맞춤 버전

⑤번과 같은 감으로 같은 집에서 맞춘 홀버전이다.

특징 : 속 버전의 더러움과 쉽게 헤지는 것을 막고 자주 빨아 솜을 두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하여 위에다 신는다. 잘 터지는 뒤축과 바닥에는



1976년 누비버전

겉바대를 대서 튼튼하게 만들었다.

## ⑦ 1970년 홀 버전

감 : 나이론 아야지

특징 : 나이론 홀 버전도 버전 위어나 양말 위에 신어 속에 신은 버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너무 질겨서 오래 신는 동안에 색이 누레지고 품위가 없는 것이 단점이다.

## ⑧ 1965년 나이론 버전

감 : 나이론에 케시미어 솜

특징 : 질기고 세탁후 손질을 하지 않음. 그러나 누레지기 쉬우므로 직사 광선을 피하도록 한다.

## ⑨ 1975년 데드론 버전

감 : 거죽과 안 모두 데드론

특징 : 데드론에 케시미어 솜을 둔 것으로 세탁 후 손질하지 않고 신을 수 있으나 삶을 수가 없어서 깨끗하지 못하다.

## ⑩ 1978년 나이론 버전(실크버전)

감 : 광택이 많이 나는 나이론

특징 : 짙은 녹색으로 더러움이 타지 않고 솜 대신 스폰지를 전면에 넣어 폭신하고 신축성이 많아서 문수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 단, 방한용으로 활동하는 데는 신을 수 있으나, 외출용으로는 부적당하다. 공기가 통할 수 없어서 비위생적이기도 하다.

## ⑪ 1976년 누비 버전

감 : 다후다

특징 : 다양한 색깔로 케시미어 솜을 두어 여러 도안으로 누빈 것. 세탁 후에도 솜의 형태가 그대로 있어 실용적이다. 단점으로 부드럽지 않고 뻣뻣한 느낌이 들며, 누빈 실이 잘 터져서

지저분하고 보기에 품위가 없다.

㉑ 고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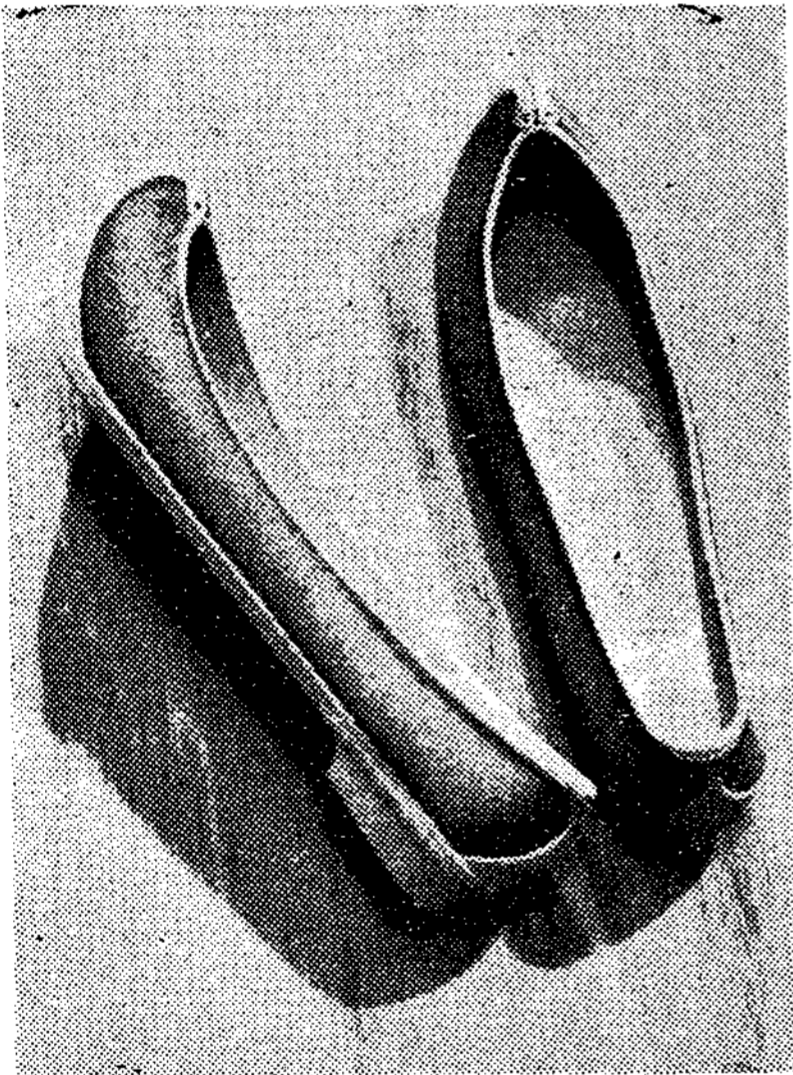
버선에는 반드시 고무신을 신어야 되며, 색깔도 다양하여 연령에 맞게 택할 수 있고, 옷 빛깔에도 맞추어 취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고무신은 항상 깨끗해야 하며 문수도 발에 맞도록 한다.

여자 고무신 문수

- 17문 : 225mm      18문 : 230mm
- 19문 : 235mm      20문 : 240mm
- 21문 : 245mm      22문 : 250mm

㉒ 고무신 모양

모양은 대동소이하나 다양한 색과 디자인에 따라 변화를 주었다. 요즈음에는 뒤축이 약간 높은 것도 있고 색채가 매우 다양해 지고 있다.



### 3. 현황의 파악

#### 1) 버선의 이용도

<표 1>

이용도 \ 나이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한복입고 외출할 때[%]	99	95	63	45	30	10
가정 생활[%]	60	45	35	20	10	3

① 외출할 때

40대 이후로는 한복입는 사람이 줄어가고 있는 동시에 한복을 입고도 버선을 신지 않고 양말에 구두를 신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는 반면에 50대 이상은 아직 버선을 많이 착용한다.

② 가정생활

옛날에는 가정에서도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버선을 신는 것이 예의였으나, 요즈음 젊은이들은 거의 버선보다 양말이나 덧버선을 많이 이용하였다.

③ 계절에 따라서

결혼이 많은 봄 가을에 가장 많이 신고 다음에 추운 겨울에 방한용으로 신는다. 여름에는 한복을 입는 경향이 적으므로 버선을 신는 경우도 적다.

#### 2) 혼수 버선

결혼을 할 때는 누구나 버선을 만들어간다. 가정생활의 정도에 따라 켄레 수의 차이가 있지만 예물용으로도 버선을 만들어가는 풍습이 있다. 다음은 결혼 년도 별로 100명 기준하여 조사비교한 것이다.

<표 2>

결혼년도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혼수버선 켄레 수	32	23	23	20	18	10
구입법(손수만듬)[%]	98	92	86	83	39	3
천(옥양복 광목)[%]	91	90	85	80	63	20
솜(목화솜)[%]	120	100	100	100	40	20

① 켄레수

혼수버선은 생활정도에 따라 그 수가 정해진다.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 가는 것을 원하였으나, 적을 때는 세탁 후 손질을 잘해 기워신는 것

이 보편화 되었다. <표 2>에서와 같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② 구입 방법

전에는 규수들이 바느질하는 것을 큰 사명으로 알고 반드시 집에서 만들었으나, 1960년대를 전후해서 급격한 변화로 맞춤집에서 맞추는 경향과 기성품에 의존하게 되었다.

③ 천의 선택

주로 무명이나 옥양목을 사용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나이론과 데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70년대에는 압도적으로 데드론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면류의 품귀 현상과 합성섬유의 급격한 발전에서 오는 현상으로 가격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데드론은 필자가 1963.5.22 일본 동경에 있는 赤坂 프린스 호텔에서 가졌던 한일친선 패션쇼를 계기로 데드론이 한국에 소개되고, 그때 처음으로 데드론 버선을 만들었던 것이 시초가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평상 버선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버선의 구입, 천의 선택, 수선법을 100명 기준으로 1978.9.8 현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평상버선 \ 나이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구입(기성품)[%]	50	65	77	88	95	99
천(나이론)[%]	17	30	40	44	65	50
솜(케시미어)[%]	34	65	70	74	85	98
수선법(손수기움)[%]	88	85	80	67	20	3

① 구입 방법

노인들은 전에 손수 만들기도 하였지만 <표 3>과 같이 나이 갈수록 기성품에 의존하며 최근에는 혼수버선과 달리 평상버선은 전적으로 기성품을 사용하고 있다.

② 천의 선택

근래에 올수록 나이론을 많이 사용하나, 최근에는 데드론을 많이 사용하였다.

③ 솜

거죽 감에 따라 솜도 따라가게 되므로 세탁에 편리한 케시미어를 사용한다.

④ 수선법

버선은 아무리 헤어져도 계속 기워 신을 수 있고 또 볼을 대서 먼저 보호하기도 하며, 정성드려 알뜰하게 기워 신을 수록 관록이 붙고 자랑스러워 전에는 모두 기워 신었지만, 요즘은 생활의 변화로 여성들도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감의 변화에 따라 헤어지면 버리게 되었다. 앞으로 폐품이용 연구가 필요하다.

4) 시장 현황

① 가격

크기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단과 상표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1978년 9.8 현재 :

옥양목 솜버선	500—600원
데드론 케시미어	350원
나이론 케시미어	350—400원
나이론 겹버선	200원
데드론 겹버선	300원
옥양목 겹버선	400원
나이론 홑버선	140원

② 소비 성향

㉠ 계절과 관계 없이 데드론 케시미어 버선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 면과 데드론은 주로 부유층이 이용하고 나이론 종류는 중 하류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 목으로 뒤집은 목버선과 수축으로 뒤집은 수축버선의 경우 기성품은 목버선 이용이 90% 정도 된다.

㉣ 최근에는 버선의 소비량이 30~40대에서 많이 쓰는 경향으로 바뀌어 간다고 한다.

㉤ 시중 버선의 1년 소비량은 500만 켤레 정도라 한다.

③ 구입 요령

맞춤집이나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주로 신용과 품질에 따른 상표를 보고 구입하게 된다.

현 시중에 나와 있는 상표로는 대왕표, 돼지표, 신양촌, 왕자표 등 50여 개 정도가 있는데 모두가 수공업에 의해 시판 되므로 상표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상표 치수, 천(원단), 솜을 보고 실용적으로 골라야 한다.

5) 버선의 치수와 고무신의 치수

버선의 치수는 17~22문이 있다.

노인들 (70~50대)은 보편적으로 발이 적어 17~18문이 기본 치수였는데 근래는 발들이 커져 기본 치수가 19~20문이라고 한다.

버선은 양말과 달리 신으면 발을 약간 조이게 되므로 고무신을 평상시보다 한문수 작게 신는 것이 좋다. 즉 버선의 문수가 19문이면 고무신은 18문을 사용한다.

또한 버선보다 신을 한문수 크게 신는다는 경우도 있고, 버선과 신을 동일한 문수로 신는다는 의견도 조사 결과 나왔다.

여름철에는 땀이나서 발이 붓는 관계가 있으므로 평상시 발 치수보다 한 문수 크게 신는 것이 발에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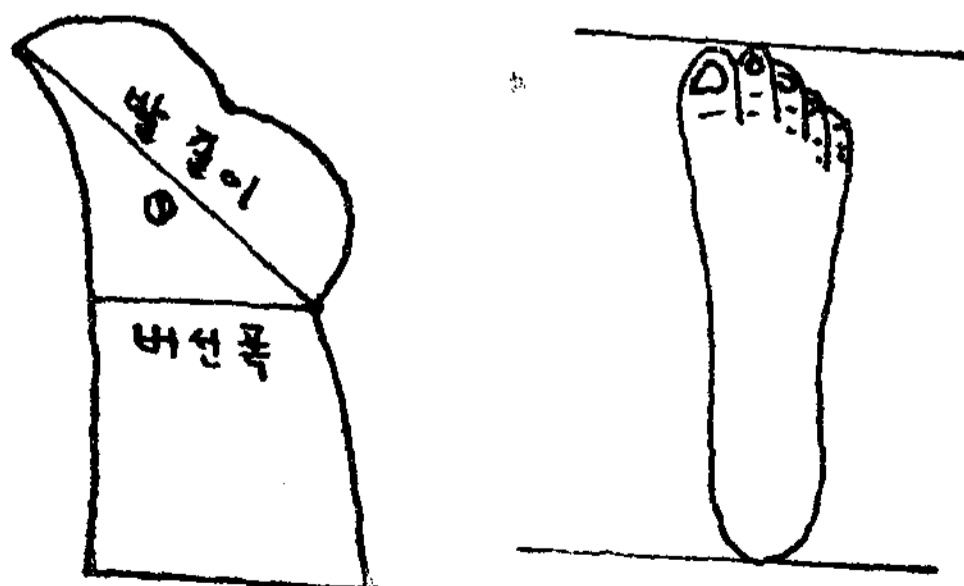
<표 4>

치수 문수	발길이	버선평	비 고
17문	225mm	134mm	모든 상표의 치수가 동일한 편이나 대왕표는 1문수 정도의 크기로 약간 다른 상표에 비해 치수가 넉넉했다.
18문	230mm	138mm	
19문	235mm	140mm	
20문	240mm	142mm	
21문	245mm	144mm	
22문	250mm	145mm	

버선의 문수에 의한 치수

버선 문수를 모르고 구입하려면 그림①의 대각선이 발 길이이므로 <표 4>를 확인하여 참조하도록 한다.

자신의 발 길이를 재는 방법은 오른발 둘째를 그려서 발가락 제일 긴 곳과 뒷꿈치에 표시를 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직선을 그린 길이이다.



4.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세탁에서 오는 치수의 변화

광목을 바래서 만든 버선은 빨아도 줄지 않으나, 표백한 광목 옥양목 포플린은 신축성이 많아서 그대로 만들었다가 빨아서 비교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은 변화를 가져 왔다.

<표 5>

① 홑버선

종류	내용	줄 은 부 분	줄은치수	비 고
광 목		전체적으로	1.5mm	
옥양목	상 수축. 코. 앞부리. 뒤축. 목.		2mm	
		중	3mm	
		하	2mm	모양이 일그러짐
포플린	상 코. 앞부리 뒤축. 목. 넓이		1mm	
		하	전체적으로	2mm

② 겹 버선

종류	내용	줄 은 부 분	줄 은 치 수
광 목		전체적으로	1mm
옥 양 목		부분적으로	1-3mm
포 플 린	목. 길이		1-3mm

겹버선보다 홑 버선인 경우에 치수의 차가 크게 나타 났으므로 합성섬유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물에 담구었다가 만들어야 한다.

2) 마름질과 식서와의 관계

모든 옷을 마름질 할 때, 식서의 방향은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된다. 버선의 식서는 그림과 같이 세로가 반드시 목 둘레가 되도록 한다. 즉 버선을 신어서 볼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신축성이 적은 나이론 등으로 기성품은 식서와 관계 없이 양이 많도록 마르므로 식서가 일정하지 않아 모양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 90% 이상이 목으로 뒤집는 버선을 만드는

이유는 대량 생산에 목적이 있으므로 맞춤이나 집에서 만드는 경우는 수축으로 뒤집는 버선을 만들어 맵시 있고 품위있게 하는것이 좋다.

### 3) 기성품의 선택

테드론 버선은 맵시가 있어 혼수용으로 애용하나, 세탁 후 때가 빠지지 않고 삶으면 주름이 퍼지지 않아 삶을 수 없어 비 실용적이다.

나이론은 테드론보다 품위가 없으나 질기고 실용적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면으로 된것을 항상 삶아서 손질을 잘하며 신는 것이 한복을 입는 온고지정이 될 수 있다.

### 4) 버선의 모양

각자의 얼굴 모양이 다르듯 발의 모양도 다르므로 발 모양에 따르는 버선을 연구 개량하여 편하고 품위 있는 버선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다.

## 5. 결 론

버선에 대해서는 문헌상으로 기록된 곳이 없으나 다만 北方, 革鞞신든 국민들에게라도 신과 살 사이의 마찰을 피하는 버선이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추상을 붙일 수 있을 뿐 이라고 한다.<sup>2)</sup> 라는 것을 보아도 자연 발생적인 신발과의 관계가 크다고 보아야 하며 의복과의 조화미를 이루는 데에도 의의가 있으나 白衣를 숭상하는 우리

민족성을 강하게 나타냄과 동시에 알뜰한 여성들의 생활 이면을 엿보이기도한 버선은 이제 여성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가고만 있다. 위에서 나타남과 같이 90% 이상이 기성품에 의지할 때 실용성과 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옳은 것을 원할 때에는 상품의 질도 높아지고 버선 자체의 원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 착용하는 사람은 매우 줄어들는데 비해 연간 소비성이 높은 원인은 옛날과 같이 계속해서 기워신는 예가 없이 손 쉽게 사서 손 쉽게 버리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대량 생산에만 치우치지 말고 소비자가 원하는 종류를 택할 수 있도록 옛날과 같은 버선도 구할 수 있다면 의식에나 방문 때는 면으로 된 버선을 신을 수 있으며, 좀더 신어서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이 되었으면 한다.

버선에 대한 폭 넓은 조사와 상세한 고찰을 後稿로 미룬다

### <參考 文獻>

1. 朝鮮裁縫全書 金淑堂 著  
活文社書店. 1924年 4月 8日
2. 朝鮮服飾考 李如星 著  
白楊堂 1947年 1月 25日
3. 朝鮮常識 風俗篇 崔南善 著  
東明社 1948年 10月 31日
4. 大韓禮典 5卷

註 2) Cf., 崔南善의 朝鮮常識 風俗篇 p.134.